보성군, 청소년·청년·다문화 가족 한마당 잔치 연다

제1회 '보성 다~청년 페스티벌' 27~28일 이지영 강사 특별강연 등 김종국,경서예지 뉴트로 콘서트 지역특산물 활용 플리마켓 운영

보성군이 오는 27일부터 28일 까지 공설운동장에서 '제1회 녹차수도 보성 다~청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뛰자 청년! 달리자 보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다~청년'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 다문화 가족, 지역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보성군의 미래를 향한 희망과 에너지를 공유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첫째 날인 27일은 청소년의 재능과 진로를 찾기 위한 문화콘텐츠와 열정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젊은 행사들이 진행된다. E-스포츠 대회, 도전! 보성 알기, 청소년 청년 댄스 콩쿠르대회 등을 통해 보성군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는 기회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이날 오후 6시 30분 개최되는 개막식에는 대규모 플래시몹을 시작으로 김종국, 김승민, 래원, 경서예지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뉴트로 콘서트를 개최해 90년대 감성과 현대의 감각을 조화시킨 무대를 선보인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다문화가족 한마당에서 국기 퍼레이드(16개국), 군립국악단공연, 다문화 가족 댄스가 열리며 다청년가족 명량운동회, 대학가요제 리턴즈 등이 개최된다.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제3회 교육발전 포럼을 열고 사회탐구 영역 대표 일타 강사 이지영 씨를 초청해 '미래를 여는 청소년의 힘과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축제의 마지막은 채연, 쿨의 김성수, DJ-DOC의 이하늘 씨가 함께하는 EDM 피날레인 타임캡슐 콘서트로 화려하게 마무리된다.

'청소년존', '청년존', '다문화가족존'마다 상설 운영 부스를 운영해 △청소년 고민 상담소 △미니 E스포츠 체험 △캐리커처·인물화 그리기 체험 △나만의 스탬프 만들기 △친환경 비누 및 방향제 만들기 △세계 음식 체험 △가족사진 전시 △세계 의상 놀이 체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청년 농부와 상인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에서는 보성군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우천 시 대책은 보성군청 누리집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호행 보성군 인구정책과장은 "'녹차수도보성 다~청년 페스티벌'은 지역의 모든 세대와 다문화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보성군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제를 통해 보성군이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지역사회로 변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2024 아동참여위 발대식·토론회 광양시

광양시는 지난 7일 육아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2024년 광양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해 아동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설기구다.

이번 행사는 아동참여위원 15명 및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위촉장 수여 △오리엔테이션(활동 안내 등) △위원장 선출 △모둠별 토론회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2024년 아동참여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7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위원 15명을 선발해 구성했으며 아동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아동 권리 모니터링 등 정책제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지난 7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광양시가 '2024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2024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 수상

광양시는 지난 7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2024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등 12개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상이다.

올해는 대학교수, CEO, 언론인 등 각 계각층의 전문가와 청년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청년 친화 지수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가렸으며, 지난 8월 6일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소통 등 청년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 우수 기초자치단체 32곳을 선정 완료했다.

광양시는 민선 8기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비전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통 창구로 '광양청년꿈터' 채널을 이용해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을 논의해 왔으며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기획하여 추진하는 청년 중심의 활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아울러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업 맞춤형 청년 취업 아카데미 △고3 학생, 자격증 취득비 지원 △빈 점포 활용 청년 사업가 육성 사업 △광양시 청년 정책협의체 운영 △청년 문화 복지카드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에 의한 정책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광양시가 2024년 청년친화헌정대상의 명예를 안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껏 청년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온 광양시의 노력과 그 성과들이 선정위원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풀이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 청년정책이 인정받은 이번 수상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 친화적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광양시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다"며 "광양은 전남에서 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인만큼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청년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제1회 여수 국제 웹페스트' 성료 여수시 제작 '하멜' 특별상 수상

여수시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웅천 GS칼텍스 예울마루 일원에서 개최된 '제1회 여수 국제 웹페스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영미·유럽·아시아 등 76개국 1306편의 작품이 출품된 이번 웹페스트에 쟁쟁한 경쟁을 뚫고 지난 6일 시상식(어워즈)에서 3개 부문 53개 상 시상이 진행됐다.

여수시가 제작한 웹드라마 '하멜'은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웹콘텐츠 부문 한국의 '대대장손' △숏폼 부문 한국의 '펭귄의 도시' △뮤직비디오 부문 스페인의 'Howl' 등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 앞서 여수시는 미국(world webfest), 영국(British web Awards), 브라질(Rio webfest Awards), 슬로바키아(azyl) 등 세계 유수의 웹페스트 조직위원회와 MOU를 체결해 향후 상생협력을 위한 해외네트워크도 탄탄히 구축했다.

영국의 웹콘텐츠 제작자 Annie Qing Han은 "대한민국 중소도시에서 이뤄낸 완성도 높은 행사와 특히 여수의 아름다운 경치에 놀랐다"며 "수많은 작품 중 제작품이 후보에 올라 영광이었고, 좋은 추억으로 오래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순천시, 우호교류 도시 프랑스 낭트시에서 문화교류

순천시가 국외 우호교류 도시인 프랑스 낭트시의 초청을 받아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라 폴리 데 플렌테스(La Folie des Plantes)'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낭트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호교류 15주년을 맞이한 낭트시와의 더욱 강화된 협력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순천시는 개회식 축하 인사와 함께 사물판굿 등 한국 전통문화 공연을 선보이며 양 도시 간의 깊은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유현호 순천시 부시장은 "낭트시의 의미 있는 행사에 순천시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가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협력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 폴리 데 플렌테스(La Folie des Plantes)는 낭트시에서 매년 9월 개최되는 식물 축제로 다양한 식물 전시와 판매를 비롯해 생태와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현재 프랑스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꽃·식물 박람회이다.

한편 순천시와 낭트시는 2009년 10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양 도시의 정원 조성, 2013·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참여, 낭트 '한국의 봄' 문화교류 행사 등 정원·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해오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여수시, 시민·귀성객 주차 편의↑

여수시는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유료 공영주차장 34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무료 개방 기간은 오는 14일 오전 8시부터 19일 8시까지 6일간이다.

단, 다수의 관광객 방문으로 주차난이 예상되는 오동도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에서 제외된다. 또 연휴 시작 전 주차장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상가를 찾는 이용객을 위해 일부 구간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과 전통시장 일부 구간 주정차 단속 완화를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군, 기초생계급여 조기 지급 20일→13일 앞당겨

장흥군은 기초생활수급자의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초생계급여는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군은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추석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달에는 13일로 앞당겨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기초생계급여가 조기에 착오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급여 정비와 지급일자 준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통해 추석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구례경찰, 캠페인 전개

구례경찰(서장 양광희)이 9일 등교 시간에 구례북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구례교육지원청, 북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Zero·아이먼저' 캠페인을 전개했다.

9일 구례경찰에 따르면 캠페인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안전수칙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천천히 가기, 주차와 정차하지 않기, 아이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하기' 등 홍보물품을 나눠주고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당부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학교 만들기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됐다.

양광희 구례경찰서장은 "개학기를 맞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